

커뮤니티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방법론 연구
- 서울시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이 호 상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IT디자인융합프로그램 박사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Based on Community Design
- Focused on Seoul Root out Crime by Design -

Lee, Ho Sang *

* Ph. D. Program of IT · Design Fusion, Graduate School of NID Fusion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KOREA SCIENCE & ART FORUM

한국과학예술포럼

KOREA SCIENCE & ART FORUM Vol.14_Regular article or full paper

* Contribution : 2013.11.01_Examination : 2013.11.05_Revision : 2013.12.20_Publication decision : 2013.12.30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I.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및 범위

II. 커뮤니티디자인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이론

2.1. 커뮤니티디자인 개념과 내용

2.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이론

III. 서울시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

3.1. 염리동 대상지 사례

3.2. 공진중학교 대상지 사례

IV. 결론 및 제언

4.1. 시사점

4.2. 결론 및 제언

Reference

Endnote

Abstract

As every crime is inevitably accompanied with damage to human, there have been various researches for active crime prevention. In Korea, most of the social cost by crimes is concentrated on the processes after crimes occur. There have been researches for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crimes.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s to actively improve vulnerable spatial environment triggering criminal acts through additional design connecting architecture to criminal psychology. The main standpoint of CPTED is to reduce local residents' psychological fear of crime damage, and also to induce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Seoul Root out Crime by Design 2012 was initially tried out for conventional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is the first case introduced to the existing area, not the large-size redevelopment areas such as new town area.

In the case of its target areas like Yeomri-dong Mapo-gu and Gongjin Middle School,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is newly receiving atten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community design, in the aspect of software besides the physical construction of environment. It has shown outcomes

in which crime watch functions were naturally promoted by strengthening community network, and psychological stability and crime prevention will be cultivated through vitalization of community like connections and communication between residents. Since CPTED demonstrates its possibility as an actual methodology, it is expected to become a very functional conceptual base within the range of urban restoration strategy through the medium of culture and arts. Thus this study aims to seek for more realistic approach measures by analyzing / reviewing the relation between CPTED and community design, and also two cases of Root out Crime by Design which has been conducted by Seoul-si to heal social problems by design since 2012. Regarding the research method, first, as a description of the background and range of the study,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were described based on literature study and in-site survey. Second, the theoretical concept of community design and CPTED was described. Third, the cases of Yeomri-dong and Gongjin Middle School were analyzed. Through the case of residents' community and cooperation between experts in various areas such as Seoul-si government workers, as a basic study of community design combined with public design associated with urban restoration, it aims to seek for effective application measures and measures of policies based on the effective approach methods of CPTED.

국문초록

범죄피해는 필연적으로 인간적 손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대부분 범죄 발생 이후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지출된다. 이러한 현상을 지양하여 최근 범죄 발생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는 범죄행위를 촉발시키는 취약한 공간 환경을 건축학과 범죄심리를 연관시킨 별도의 설계에 의해 적극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CPTED의 주요 관점은 지역주민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심리적 공포심 감소와 범죄예방 활동에 자발적 참여 유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2012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는 재래식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처

음 시도되었다. 뉴타운 지역 등 대규모 재개발 지역이 아닌 기존 지역에 도입한 첫 사례이다. 대상지역인 마포구 염리동과 공진중학교 사례에서 CPTED는 환경의 물리적 조성 외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커뮤니티디자인 도입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는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자연스럽게 범죄발생 감시기능 등을 촉진시키며 지역민 상호간의 소통과 연계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범죄예방 의지를 함양시키는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 예술을 매개로하는 도시재생 전략 범위 내에서 CPTED가 실질적인 방법론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기능적인 개념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CPTED와 커뮤니티디자인의 관련성 및 서울시가 2012년부터 디자인으로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의 사례지 2곳을 분석 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연구의 배경 및 범위에 관한 기술로 문헌조사와 대상지 현장답사 등을 기초로 현재 현황과 특성을 기술하였다. 둘째, 커뮤니티디자인과 CPTED의 이론적 개념에 관해 기술하였다. 셋째, 첫 대상지 염리동과 공진중학교 사례를 분석하였다. CPTED의 효과적 접근방법으로 서울시공무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과 지역민들의 커뮤니티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과 연관된 공공디자인이 접목된 커뮤니티디자인의 기초연구로써 효과적 활용 방안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ey Words

Community Design (커뮤니티디자인), Seoul Root out Crime by Design (서울시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 Yeomri-dong (염리동), Gongjin Middle School (공진중학교),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I.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이후 도시범죄는 범죄 심리의 병리적 현상이 깊어지는 추세에 따라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신병적 이상심리에 의한 우발적 범죄가 일상화하면서 범죄의 내용 또한 흉포해지고 있다.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범죄 피해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가족, 친지 등 일정범위 내의 사회구성원을 정신적, 물리적으로 손상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심

각한 후유증을 유발한다. 범죄의 발생은 인근 지역 거주자의 불안감 증대, 상호불신의 조장 등 지역 커뮤니티의 붕괴를 야기 시키고 잠재적으로 또 다른 사회적 병리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2009)에 의하면 연간 범죄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은 23조1,200억에 이른다. 이중 대부분 비용은 범죄의 사후조치로 소요된다. 나날이 증가하는 범죄의 발생을 제어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찰력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있다.

학술적으로 물리적 도시환경요소가 범죄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일찍이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회문제로 인식한 선진국에서는 도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지침을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방법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이다.¹⁾ 이는 도시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구조적 장치를 디자인 과정에 삼입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CPTED의 기본 개념에 ‘커뮤니티’의 가치 특성이 반영될 때 지역민 자체로부터 자발적인 범죄에 관한 방어기제 형성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CPTED가 적용된 실제사례를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신축아파트가 아닌 기존 시가지에 CPTED가 적용된 첫 대상지인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과 공진중학교의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과 지역민들의 커뮤니티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과 연관된 공공디자인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CPTED와 사회적 기능으로서 커뮤니티디자인(Community Design)의 기초연구로써 효과적 활용 방안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최근 각 지자체 마다 뉴타운 건설과 신도시개발기본계획 속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개념을 범죄예방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나 정작 각종범죄에 아무런 대책 없이 노출된 재개발·재건축 이전의 낙후지역은 복합적인 여러 문제로 인해 범죄예방에 관한 시설측면의 대책이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는 재개발이 예정되

어 낙후된 기존 거주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디자인을 기반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개념의 의의, 필요성 등을 고찰하여 향후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확장전략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디자인과 CPTED 개념에 관한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파악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2012년 개최된 범죄예방디자인세미나 : 범죄를 근절하는 디자인)에서 해외사례와 문헌 및 인터넷을 통해 디자인과 접목된 실제적용 사례를 수집 검토하였으며 국내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첫째, 커뮤니티디자인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CPTED의 역사와 의의 및 디자인과 접목된 범죄예방디자인으로서 가능성을 서술하였다. 셋째, 범죄예방디자인의 효과적 성과를 이루기 위한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방법적 수단으로 성공적 결과로 주목 받고 있는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를 CPTED와 커뮤니티디자인의 융합관점에서 기술하였다. 넷째,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후 공공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을 실현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을 높여 범죄방지를 위한 도시환경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커뮤니티디자인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이론

2.1. 커뮤니티디자인 개념과 내용

(1) 커뮤니티 용어적 개념과 커뮤니티디자인

커뮤니티의 정의는 문학비평용어사전(2006)에서 ‘공동체(Community)’라는 용어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을 이루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할 때 그 조직을 일컫는다. 단순한 결속보다는 더 질적으로 강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조직이다. 공동체는 상호의무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을 핵심내용으로 하며, 개인과 공동체사이의 갈등조정이 중요한 관건이다. 사회학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 선행하는 역사적 존재 형태를 뜻하기도 한다. 전근대사회의 중요한 생산·생활의 단위로서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보충한 공동조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사회학사전(2000)에는 ‘커뮤니티(Community)’를 ‘지역사회’로 번역하고 “전적으로 혹은 대체적으로 지역적 영토의 경계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의 한

틀”이라고 설명한다. “지역사회는 부족집단의 연구에서의 친족에 필적”하며 “공간적 요소를 가장 중요시”하고 “문화적 유형을 형성하는 상호관련된 것으로서의 관습에 대한 관심”이 이에 관한 연구의 핵심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치, 문화, 역사를 함께하는 사회, 공동사회, 공동체’를 의미하며 ‘사상, 이해 따위의 공통성, 일치, 유사, 친교, 친목’을 뜻하는 동시에 ‘재산의 공유, 이해를 함께하는 단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가 함축하는 정서적 내용은 공유, 친교 또는 친목의 뜻으로부터 유추되는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감과 따뜻한 친밀함, 유대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 문화, 역사, 사상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뜻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전통적 가치관과 연계된 의미구조를 읽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커뮤니티’는 주로 지역적으로 동일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의 연결망을 의미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어 일체감과 공유된 경험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함축하고 있는 ‘합일체(communion)’ 혹은 ‘공동체’로서의 어의(語意)에 더욱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커뮤니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변화된 의미구조를 지닌 채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 이르러 ‘공동체’에 관한 의미는 보다 일상화되어 지역적으로, 혹은 공동의 이해관계로, 이념적 가치의 공유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집단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커뮤니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커뮤니티디자인은 1960년대 이후 주로 미국의 도시설계 부문에서 대규모 재개발 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진행된 커뮤니티 디자인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론적 배경이 형성되면서 현대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경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커뮤니티디자인 관련 논의의 주요 내용은 목적, 참여, 소통방식, 디자인 등으로 구분되면서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오고 있다. 이는 기존 디자인이 물리적 환경 자체를 대상으로 삼았던데 반해 물리적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를 중시하는 디자인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연구와 커뮤니티의 참여의 문제, 소통방식에 있어 민주적 대화와 의사결정 과정의 소통방식에 관한 연구, 디자인이라는 행위와 디자이너의 역할에 관련된 문제 등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커뮤니티디자인에 대한 전반적 접근방식은 커뮤니티 디자인 운동으로부터 전개되어온 방식과 하나의 커뮤니티라는 물리적 공간 자체에 대한 디자인 개념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현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적 내용에 대한 욕구가 점차 개별화하고 지속가능 발전가능성의 문제, 사회·문화적 가치 사이의 관계망 형성 등으로 사회 전반이 다층적 구조를 지향함에 따라 커뮤니티

자체의 내적 소통과 참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²⁾

사토 마사루(2005)는 커뮤니티 디자인은 역사와 전통을 적극 의식하면서 문화적 가치창출을 통한 자아정체성 확립에 행위의 근거를 두고 실천해야 하며 “디자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협동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주민 모두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디자인이 실천가능하기 때문이다.”³⁾ 라고 지적했다.

커뮤니티디자인에서의 커뮤니티는 지역공동체를 의미하는 리저널 커뮤니티(Regional Community)를 말한다. 따라서 커뮤니티디자인이란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커뮤니티디자인은 공동체 계획 또는 설계를 뜻하기도 하지만, 지역공동체의 인프라스트럭처(Community Infrastructure)라고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확보를 위한 조형 활동으로 이해 할 수 있다.⁴⁾

(2) 장소성과 커뮤니티디자인 요건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배경은 이념과 가치관의 공유 또는 공통의 이해관계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인류 문명사를 통해 가장 오래된 공동체의 형태는 일정 지역의 정주상태를 기반으로 형성되어온 지역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일정 지역이란 곧 하나의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커뮤니티’라는 용어에 있어 장소가 지니는 의미는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⁵⁾

에드워드 랠프 Edward Ralph(2005)는 장소개념을 6가지 특성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장소는 다른 사물이나 장소와 관련된 위치개념으로서 공간적 범위로 내부와 외부로 지니며, 자연적 문화적 요소들의 통합으로서 장소 고유 의 양상들을 이루는 실체이고, 공간적 상호작용과 이동의 체계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순환하는 구조의 일부이며, 더 큰 지역의 부분으로 지역 분화하는 국지적 특성을 지니고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 나타나거나 생성되고 있어 역사적 문화적 변화를 통해 독특한 구성요소를 지니고 인간의 행위와 관련되어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랠프는 “루커만은 장소를 특정 위치에서 발달해 왔으며 현재도 발달하고 있는 자연과 문화의 복합적인 통합체로 보고 이 장소들이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장소란 단지 사물이 위치한 ‘어디’가 아니다. 장소는 위치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통합되어 있고 의미 있는 현상으로 보이는 위치를 점하는 모든 것이다”⁶⁾ 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곽동화, 이석현(2010)은 “장소는 커뮤니티 구성원의

경험과 사용을 통해 의미가 부여되는 환경이다. 이러한 장소는 외부자인 전문가보다 해당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에 의해 누구보다 잘 파악되고 인지됨으로써 창조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성의 발굴과 창조에 의해서야 비로소 해당 커뮤니티는 다른 커뮤니티와 구별되는 아이덴티티를 갖게 될 수 있다”, 고 하였다.

앤서니 D 킹(2009)은 장소와 공동의 정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건축과 장소 또 이와 관련된 토론과 기억은 개별적이거나 단체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재난이 있거나 축하해야 할 일이 있거나 사람을 만나는 도심 속의 장소를 비롯한 특정한 도시풍경은 우리 각각 혹은 전체의 기억 속에 자리 잡는다. 바로 이러한 기억들이 지역사회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도와주고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한다.”⁷⁾

커뮤니티디자인은 이러한 지역 정체성을 살려 ‘장소 특성(Site-specific)’을 담고 장소의 맥락이 구현되어 지역 주민의 일상적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정서적 국면에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안고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이 시각적 쾌적성과 심미적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시민의 일상적 편의성 내지 필요성이 디자인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 문제를 고려할 때 커뮤니티디자인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파악하는 디자인 전 단계에 대한 심층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01] 일반 디자인과 커뮤니티 디자인의 차이점⁸⁾

	일반적인 디자인	커뮤니티 디자인
대상의 변화	물리적 공간(장소)에 치중	사회적 공간 (장소+사람+생활의 복합체)에 관심
주체의 변화	전문가 작업 체계에 의해 운영	다양한 주체간 협력적 작업체계를 지향
역할의 변화	목적을 얻기 위한 도구적 언어로서의 역할	목적을 얻는 과정으로서의 소통적 언어로서의 역할
성격의 변화	디자인 전문성의 자기 표현적 이데올로기	디자인을 통한 문제해결의 실마리 제공
사용자 역할의 변화	결과물의 구경꾼으로서의 관객 역할	단순한 사용자를 넘어 참여적 주체로서의 역할
소통의 목적의 변화	전문가 의도의 일 방향적 전달	문제의식 드러내기와 지역주민간의 상호 이해
공공성 성격의 변화	개념적·보편적·과시적 공공성을 중시	주민, 지역과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공공성을 중시
중시가지의 변화	결과물의 시각적 상징성과 과시성 중시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의 사용자와 장소와의 관계를 중시

도시환경에 대한 입장변화	개별적인 가치를 중요시해 주변 도시환경에 독립적인 태도를 취함	주변 도시환경과의 맥락을 바탕으로 한 장소의 관계망 형성을 중시
영역 경계의 변화	개별영역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추구	디자인과 비 디자인의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장르간의 창의성과 통합성을 추구

커뮤니티디자인은 단순히 미적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공간 구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합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적 측면 전반을 고양시키는 근본적 당위성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인 개념의 공공디자인과 차별화 된다.

2.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이론

(1) CPTED의 발달과정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은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3요소와 그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범죄유발요인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동안의 범죄예방과는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달리 한다. 과거의 범죄예방은 범죄의 근본원인을 개인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상황으로 간주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이론은 범죄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대에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는 주어진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제한다.⁹⁾

근대 사회학의 창시자인 Kurt Lewin은 인간의 행동을 $B=f(P, E)$ 라는 함수로 표현했다. 이러한 함수식처럼 인간의 행동은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그 결과인 인간행동을 예측하고 나아가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면 범죄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¹⁰⁾ 초기의 CPTED에 대한 관심은 도시의 설계와 범죄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관찰을 기술한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의 1961년 연구저서 “위대한 미국 도시들의 삶과 죽음(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방어공간이론(Defensible Space)”에 의해 시작되었다. 제이콥스는 주거를 위한 구역의 독자적 개성과 자연적 감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Oscar Newman은 이에 대해 1972년 그의 저서 “방어공간”을 통해 연립주택과 아파트 위주의 공공주택에서의 공간관리 및 설계와 범죄와의 상관성을 증명하면서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구역적인 관심의 중대성을 강조하였다.¹¹⁾ 그는 뉴욕의 어느 두 마

을에서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 수가 3배가량 차이가 나는 현상에 의문을 품었다. 뉴먼은 두 마을이 건물 배치 모습이나 공공장소 활용 실태 등 공간적 설계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연구한 끝에 공간 디자인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에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론을 정립했다.

실제 CPTED라는 용어는 1971년 레이 제프리(Ray Jeffery)의 책 제목에서 유래했다.¹²⁾ 레이 제프리는 1964~1968사이에 미국 도시들에서 발생한 다량의 도시 내 폭력과 인종불안에 대해 연구한 미국의 “폭력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1968년 보고서의 초안을 기초로 1971년 그의 저서에 최초로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용어를 타이틀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의 CPTED전략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치안활동(일명 Community Safety 또는 Community Oriented Policing)을 위해 활발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은 70년대 미국 법무부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아 Westinghouse 회사에 의해 수행된 CPTED 프로젝트였다. 즉 주거지역에서만 활용했던 CPTED 개념이 상가, 교통운송수단 그리고 학교환경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후 80년대에 연방정부의 CPTED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었으나 현재는 주와 지역단위 정부가 CPTED 프로젝트를 선도하면서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만들어 왔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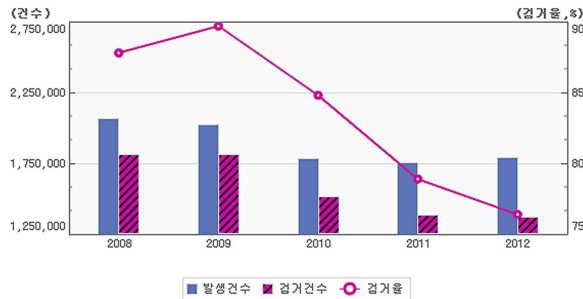
국내에서 셉테드라는 개념은 90년대 중반부터 학문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 3월 경찰청에서 셉테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 보급되었다. 또한, 그 해 7월에는 판교 신도시에 셉테드 원칙 적용에 관해 경찰청과 건설교통부의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 셉테드 지침서가 마련되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셉테드가 기본계획 속에 포함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¹⁴⁾ 2010년에는 한국셉테드학회가 설립되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CPTED의 효용성이 알려지고 공공기관의 정책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 CPTED의 의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연간 범죄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은 23조1,200억 원이며 범죄예방단계에서 사용한 7조5,000억 원 외의 대부분 비용이 범죄수사와 검거 등 사후조치에 사용되었다.¹⁵⁾ 이러한 막대한 국가 예산이 예방적 환경 구축에 사용되었다면 거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인프라로서 효율적 국가 자산이 되어 반영구적인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CPTED의 적극적 적용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

치기'라는 현명한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경찰의 공식범죄 추세 통계와 범죄자 검거율을 보면 우리가 사는 도시공간이 범죄위험에 날로 취약해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력의 확충이나 보완의 문제가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제도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범죄예방 전략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

[표-2] 총범죄 발생 및 검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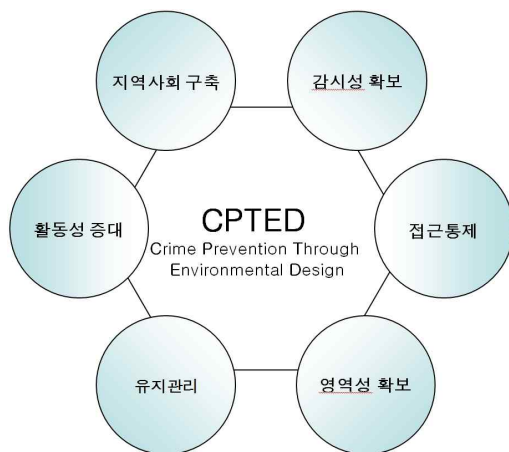


통계표명: 총범죄 발생 및 검거					
	2008	2009	2010	2011	2012
발생	2,064,646	2,020,209	1,784,953	1,752,598	1,793,400
검거	1,813,229	1,811,917	1,514,098	1,382,463	1,370,121
검거율	87.8	89.7	84.8	78.9	76.4

출처: 나라지표(경찰청 범죄통계)

최근 CPTED는 이전의 물리적인 방법인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유지관리 외 시민들의 자연적 감시를 유도하기 위해 활동성 증대, 지역사회 구축 등 기존 접근방식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접근방식을 확대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 내부로부터 범죄예방 의지를 형성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3] 셉테드의 기본 전략¹⁶⁾



①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주민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나 벤치 설치 등 해당 지역에 일반인들의 이용을 장려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거리의 눈'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그 기능이 최대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시켜야 한다. 잠재적 범죄 발생 예상지역의 조명, 통행인 환경, 장애물 제거 등의 방식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피해자의 구조요청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구성원 내부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②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일상적 보행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노출 가능성을 확대하고 범죄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에게는 익숙하나 외부인에게 낯선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주민 내지 통행인에 대한 범죄행위가 어려워지는 통제기능이 가능해진다.

③영역성(territoriality): 일정지역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사용 또는 점유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영역성을 확립함으로써 범행충동을 감소시킨다.

④활동성 증대: 커뮤니티 내에서 주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이를 통해 이웃과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⑤유지관리: 깨어진 창문이나 낙서가 된 벽면 등은 일반시민과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해당 공간이나 지역에서는 무질서와 불법이 쉽게 허용된다고 인식하게 만들어 주는 'No one care'의 신호로 작용하게 된다. 반대로 빠른 보수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박현호, 2008) '깨진 유리창' 법칙이론을 바탕으로 건축물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범죄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

⑥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외부공간의 효율적 계획을 통해 주민들의 자연적 감시를 증대시키는 '지역사회 구축' 등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CPTED의 기본전략은 안전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서울시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

3.1. 염리동 대상지 사례

(1) 조사대상의 개요

염리동 소금길은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아닌 기존 시가지에 범죄예방 디자인이 적용된 첫 사례지이다. 서울시의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취약지역인 이곳 염리동과 강서구 가양동 공진중학교를 범죄예방디자인(CPTED) 프로젝트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서울시

161개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중 도시중심의 기존 디자인 정책을 사회적 약자와 사람중심으로 전환한 첫 사례지이다.

염리동이 선정된 이유는 주민자치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 단순히 1세대 CPTED가 아닌 2세대 CPTED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이 고려되었다.¹⁷⁾ 2012년 11월 도시의 범죄와 안전을 위해 문제를 예측·분석·예방하기 위해 범죄학자, 행동심리학자, 도시계획 전문가, 지역공동체 활동가, 디자이너, 각 자치센터 공무원, 경찰, 시민이 함께 모여 노력한 결과로 서울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마포구 염리동 일대의 우범지역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공간개선을 시도했다. 이러한 접근은 도시재생 개념의 실질적 적용으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정비의 또 다른 주요 측면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는 상대적 저비용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각종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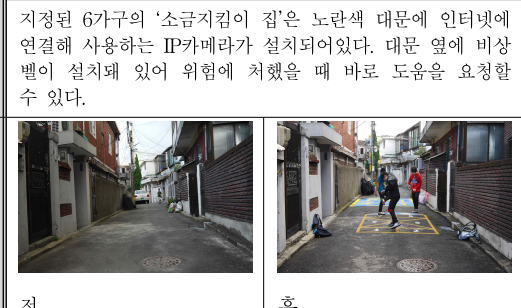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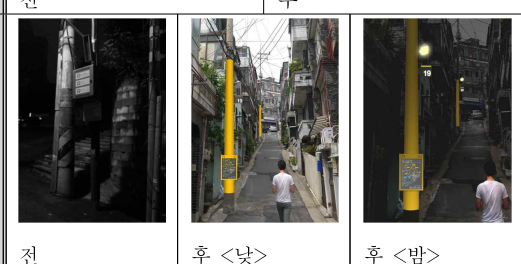

소금길 1.7km 구간은 이 지역 골목길에 염리동지명에서 착안한 소금길을 조성하였다.

소금길로 조성된 구간은 시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심리적으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별 지수를 측정해 ‘범죄공포지도’를 완성하고 여기에서 발견된 핫 스팟(hot spot)의 사각지대들을 연결한 곳이다.¹⁸⁾ 소금길 조성 전까지 운동을 할 만한 놀이터나 공원도 없고 인적이 드물어 무서웠던 좁은 골목길이 1.7km의 ‘소금길’로 모습을 바꾸면서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즐겨 찾는 운동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공간이 되었다.



<그림-01> 소금길 지도

소금길은 범죄예방뿐 아니라 운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전문 트레이너가 코스를 설계해 골목의 계단과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40분에 걸쳐 A, B 코스를 돌 경우 약 619Kcal가 소모돼 약 163분의 건강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한국일보 2012.10.18.) 1.7km의 소금길은 A, B 2개 코스로 도로로 총 40분이 소요된다.

지킴이 집	
바닥 놀이	
전봇대 길	
주민 참여	

<그림-02> 소금길 현황

(2) 대상지 현황 분석

① 역사

염리동은 글자 그대로 소금과 관련된 곳이다. 옛날 서울에 소금을 공급하던 곳으로 소금배가 드나들고 소금전이 있으며 소금장수들이 많이 살았다. 대흥동 동막역 부근에 소금창고가 있었고 이와 가까운 일대에 소금장수들이 많이 살았으므로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들 소금장수들은 동막에서 사온 옹이항아리에 소금을 담고 나무에서 부린 생선류와 서로 맞바꾸었다. 마포동의 소금 머리골에는 소금배가 드나들던 소금전이 있었다.(서울지명사전, 2009)

과거 마포나루를 거점으로 한, 이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지만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원주민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가 되었다. 경찰청이 지정한 161개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중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혔다.

② 특징점

이곳 염리동에 CPTED 도입은 그 자체로서 전적으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초기 지역의 특수상황이나 전개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부분적으로 무리한 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다음과 같이 여러 시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는 외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주민 스스로 범죄예방에 대한 의지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데 기본적 목표를 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는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 전반을 결국 스스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자신감과 자각을 일깨우는 하나의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자각은 지역사회 내부의 유대와 소통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소금길과 공진중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저소득 소외계층 비율이 높고 복지가 열악한 지역의 사각지대를 자연스럽게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로 언젠가는 흩어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던 마을 주민들은 각종 직능단체, 통반장 모임, 마을기업,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에 참여했다. 인근 한서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등하교길 순찰을 늘리고, 염산교회 신도들은 '소금길 산책하기'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보도자료(2013. 3.14)에 의하면 범죄 사전예방으로 연간 2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공동체 회복 효과가 있는 만큼 향후 도시공공디자인에 범죄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을 적극 반영할 계

획에 있다.

염리동 소금길 활성화 확대를 위한 전초기지 및 24시간 초소기능뿐 아니라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소금나루가 소금길 초입에 위치한 대흥가압장 자리에 개관한다. 가압장은 고지대에 펌프로 급수하는 기반시설이다. 용도폐지 후 지역재개발을 앞두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다. 현장에서 주민들이 이 시설주변에서 범죄공포를 느낀다고 설문에 대답한 바 있다. 한때 시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급수를 담당했던 장소가 현재에 이르러 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소금나루는 소금길 모니터링, 주민안전교육,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창의 학습, 골목 아틀리에 운영, 도시농업 등 주민교류를 위한 개방과 어울림의 공간으로 주민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2012년10월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시범 운영한 소금길과 공진중학교 운영 5개월 뒤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효과를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소금길의 경우 6개 항목(소금길 인지도, 경험률, 만족도, 본인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가족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동네에 대한 애착)의 설문조사 (1차 설문조사는 181명(남90, 여91), 2차 조사는 191명(남95, 여96)에 대해 실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평가지표에 의하면 주민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범죄 두려움은 각각 9.1% 및 13.6% 줄었고, 만족도와 동네에 대한 애착은 아래 표와 같다.

[표-04] 소금길 만족도 (단위: %)

	사 례 수	전혀 만 족스럽 지 않다	별로 만족스럽 지 않다	대체로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불 만 족	만 족
전체	(72)	1.4	15.3	70.8	12.5	16.7	83.3
성 별	남 (31)	3.2	16.1	74.2	6.5	19.4	80.6
	여 (41)	.0	14.6	68.3	17.1	14.6	85.4
연 령	20 대 (9)	.0	11.1	77.8	11.1	11.1	88.9
	30 대 (17)	.0	23.5	70.6	5.9	23.5	76.5
	40 대 (16)	.0	6.3	81.3	12.5	6.3	93.8
	50 대 (18)	5.6	16.7	66.7	11.1	22.2	77.8
	60 대 이 상 (12)	.0	16.7	58.3	25.0	16.7	83.3
	소금 길 (26)	0.0	11.5	80.8	7.7	11.5	88.5
비 소금 길 여 부	(21)	4.8	9.5	61.9	23.8	14.3	85.7

[표-05] 동네에 대한 애착 (단위: 평균(점))

	1차 (A)	2차 (B)	Gap (B-A)	증감율	t값	유의 확률
나는 우리 동네에서 오래살고 싶다.	2.39	2.73	0.34	△14.2%	-4.012	0.000
나는 우리 동네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2.45	2.74	0.29	△11.8%	-3.605	0.000
나는 우리 동네가 마음에 든다.	2.44	2.83	0.39	△16.0%	-4.557	0.000
우리 동네는 평판이 좋다.	2.33	2.62	0.29	△12.4%	-3.438	0.001

마을에 대한 애착은 13.8%가 증가했다. 특히 주민들이 범죄 불안감을 느끼는 핫 스팟(hot spot)을 연결해 운동+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소금길에 대한 범죄예방효과는 78.6%, 만족도는 8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울 염리동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욕으로 빠르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소금마을의 사례는 마을 만들기 사업 및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수상, 마을사업의 수범사례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 주민자치사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듭나고 있다.

3.2. 공진중학교 대상지 사례

▶ 조사대상 개요 및 현황

주변에 4400여 가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선 공진중학교엔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이 많다. 신입생을 보낸 학부모들이 ‘분위기가 어둡다’며 한마디씩 했다. 아이들은 늘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소외감도 컸다. 그랬던 학교가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이전에 페인트칠이 벗겨질 정도로 방치되거나 흰색이나 회색이었던 교실과 복도는 채도가 높은 다양한 색과 그림으로 꾸며졌다. (한겨레신문, 2013.03.14)

서울시가 CPTED 시범지역으로 공진중을 선정한 이유는 서울시 교육청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조사를 한 결과 공진중 학생의 우울증 지수가 평균보다 높았으며 자살 위험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03> 공진중학교 정보관 (우측: 전, 좌측: 후)



좌측상단사진: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던 교내 사각지대에는 음향시설을 갖춘 꿈의 무대를 만들어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학교 정보관 1층 한 귀퉁이에 있는 드림 스테이지, 세로 2m의 좁은 공간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동영상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사진출처: 디자인서울 vol.08, 중앙일보 2013. 3.14

<그림-04> 공진중학교 ‘스트레스 제로존’

강서구 공진중학교에는 ‘감시’ 대신 ‘참여’와 ‘즐거움’의 디자인을 적용시켰다. 교내에 사각지대가 많지만 주로 CCTV에 의존해 감시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CCTV가 없는 사각지대 8곳에 CCTV가 아닌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했다.

영상 속 학생들의 움직임을 통행이 많은 현관입구 ‘소통의 벽’에 송출하도록 했다.(그림 04 좌측 상단)

회색 페인트칠이 벗겨진 채 방치되던 학교 내, 또 다른 사각지대는 샌드백과 알록달록한 암벽 등반 등의 운동시설을 설치한 ‘스트레스 제로 존’을 조성했다.(그림 04 좌측 하단, 우측 그림) 밋밋했던 복도와 계단에

는 채도가 높은 색과 중학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컬러테라피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 작업에 윤호섭(그린디자인), 한명수(시각디자인), 이성표(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일러스트레이터) 등 8인의 디자이너와 5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했다.

공진중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쉬웠던 사각지대를 공간의 개선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들과 학생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학교폭력과 흡연 등이 벌어지던 탈의실이나 교내 구석진 곳은 춤추는 무대, 암벽 등반장, 샌드백이 들어섰다.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쉬웠던 공간이 이제는 친구들과 놀고 스트레스를 푸는 곳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강서구 공진중학교의 경우 학교의 사각지대를 CCTV의 역발상(학생들의 움직임은 통행이 잦은 현관 입구의 '소통의 벽'과 교무실에도 송출된다)으로 자연스런 모니터링이 가능하게끔 디자인한 공진중학교 역시 무질서 인식과 범죄 두려움이 각각 7.4%, 3.7% 하락한 반면 집합효율성과 학교애착은 각각 2.3% 및 1.4% 증가했다. 특히 시설물 호감도는 27.8%가 높아졌다.



좌측: 설치 전, 우측: 후. (사진출처: 서울디자인재단)

<그림-05>공진중학교 '스트레스 제로존' 암벽 등반시설

IV. 결론 및 제언

4.1. 시사점

위 사례의 경우 실제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높게 나타나에 따라 서울시는 2013 올해 시범 사업지 3곳, 중랑구 면목 4·7동, 관악구 행운동, 용산구 용산2가동을 추가 선정하였다.

12년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의 성공적 사례와 셉테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 외 낙후된 우범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06] 범죄예방디자인 도입 현황

지자체 범죄예방디자인 도입 현황	
서울	- 2013 올해 시범 사업지 3곳, 중랑구 면목 4·7동, 관악구 행운동, 용산구 용산2가동을 추가 선정하여 확대 적용 할 계획
부산	- 김길태 사건 발생한 사상구 덕포동에 방범용 폐쇄회로 설치와 골목길 벽화장식.
경북	- 성폭력 예방 유해환경 개선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이 발생하는 도내 유흥가 밀집지역 외 대학가 등 6개 특별관리 구역에 가로경관 구조변경 추진
충남	-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천안역 서부전입로에 가로등 4배 이상 밝힌 친환경 발광다이오드 가로등 설치와 벽화작업으로 시각환경 개선
제주	- 삼도2동 일대 2곳에 조명시설 보강, 담벼락 채색 등 도시환경 정비 - 서귀포 대정중학교: 학교 내 우범공간을 개선해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범 학교로 선정해 벽화 그리기를 진행했다.

초·중학교 범죄예방디자인 도입현황	
교육부	전국 20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사각지대에 벽화를 그려 낙후된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블루존 캠페인'을 진행한다. '블루존 캠페인'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벽화 디자인을 통해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요소를 적용한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오는 15일 서울 강남중학교를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된다.
서울시 교육청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7개 초·중·고교에서 학교 내 안전사고 및 외부인 침입 예방 등을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공간의 시설을 개선하고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학생 정서를 순화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염리동 지역주민들 그리고 공진중학교 학생들과 학교 교직원 등이 셉테드 도입에 적극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위 사례지 2곳의 성과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1) 셉테드 적용 공간의 확장

- 지금까지의 범죄예방 전략들은 주로 신축되는 건물이나 신도시,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정작 범죄로부터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재개발 및 재건축 시행 이전의 상태, 즉, 단독주택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좁은 골목길, 1인 가구 및 외국인의 거주로 인한 이질적 지역정서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셉테드의 구체적인 투입계획이 매우 부족하였다. 이 사업은 위와 같이 일반적인 셉테드의 전략투입 대상을 재개발이전의 상태, 열악한 단독주택지역 등으로 확장

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갖고 정책을 입안·실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¹⁹⁾

- 세부적으로 사각지대 개선과 부지용도를 다양화하였다.(주민자치센터에 마을기업 솔트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대흥 가압장을 활용한 사랑방 역할 및 24시간 초소기능을 갖춘 ‘소금나루’ 운영과 커뮤니티 공간이 계획되어있다.

(2)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활성화

- 범죄학자, 도시계획 전문가, 행동심리학자, 디자이너, 지역공동체 활동가, 각 시, 구, 동의 공무원과 경찰의 협업 그리고 주민과 학생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였다,

(3) 염리동 지역경제 활성화와 맥락 찾기

- 염리동의 경우 과거 조선시대 소금 거래소였다는 지명에서 착안하여 소금을 모티브로 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 위치한 솔트카페는 소금마을의 문화적 가치를 상품화한 마을기업으로 자리 잡고 고용 창출의 효과도 낳고 있다. 또한 10. 4~5일 2틀간 마포아트센터와 염리동 일대서 ‘구석구석 소금길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는 타 지역주민들에게는 염리동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소금길’을 테마로, 기획부터 참가까지 동네 주민들이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였다.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나자는 취지를 담아낸 것이다.

4.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검토한 두 곳의 사례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각 환경개선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성공요인은 무엇보다도 지역민과 학생들 등 그 공간의 주인인 구성원들의 참여와 관심의 결과였다.

그러나 한편 소금길에 관한 비판적 견해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2012년11월23일자 여성신문은 조명이 약해 각 시설물이 야간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일부 지역주민들은 재개발을 기대하고 있어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CPTED 적용에 비협조적인 입장이라는 점과 범죄예방디자인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장점은 있지만 한계점 또한 명확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지역주민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쉬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개발 이

전 단계의 거주지에서 CPTED의 적용 문제는 건축적 내용에서 출발하여 지역민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이라는 매우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모색이 귀결점이 되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다 냉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개발계획 등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곳 염리동과 같은 도시개발의 계획 단계 이전 지역은 이러한 법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제기한 문제점 중 재개발 예정지역이라 조도를 높이지 못해 야간에는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경우와 같은 현실적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법적 기반이 충실히 마련되어야만 시행과정의 현실적인 단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을 철저히 검토한 후 합리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염리동과 공진중학교 사례는 각 지자체 마다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CPTED의 심층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업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도입하기보다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CPTED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마련과 “대상지역의 범죄경향, 물리적 특징, 사회·경제적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물리적 설계, 사회단체나 경찰과의 연계를 포함한 범죄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는 경찰청의 분석을 공공디자인에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Reference

- [1] 강부성, “사람을 위한, 안전을 위한 디자인”, 디자인손책 11번째, 2012.
- [2] 경찰청 생활안전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방안」, 경찰청, 2005.
- [3] 고영복 편,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p.367. 2000.
- [4] 고재일, “으스스한 곳에 ‘벽화’ 그리면... 학교폭력 줄어든다?”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 (2013.11.14.)
- [5] 광동화, 이석현,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참여형 디자인 프로세스의 평가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24(4), p.123. 2011.
- [6] 김수희, “골목 밝아져서 덜 불안해요”, 여성신문, 2012.11.23.
- [7]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2013.09.30.)

- [8] 뉴시스, <http://www.newsis.com> (2013.11.14.)
- [9] 도시연대 커뮤니티 디자인센터,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다」, 나무도시, 2009.
- [10]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연구”, KiC형사정책연구소식, 126(0), 2013.
- [11] 박기용, “디자인 입헌 학교 아이들도 달라졌다”, 한겨레신문, 2013.03.14.
- [12] 박현호,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필요성 고찰”, 인문사회논총, 2008.
- [13] 박현호, “영국의 CPTED전략”, 한국경찰연구, 1(2), 2003.
- [14]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2013.11.10.)
- [15] 사토 마사루, 김명환 역, 「커뮤니티 디자인, 어떻게 할 것인가?」, 디자인 로커스, 2005.
- [16] 서울디자인재단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loveddp&logNo=100169886196> (2013.10.30.)
- [17]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 정책과 보도자료, “범죄예방디자인 염리동 주민 범죄두려움 줄었다”, 2013. 3.14.
- [18]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보도자료, “겉기도 무서웠던 염리동 골목길, 디자인으로 범죄예방”, p.4, 2012.10.17.
- [19]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서울 vol .08」, 2013.01.
- [20] 서울시, 「서울 국제 범죄예방 디자인 세미나」, 2012.
- [2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 [22] 앤서니 D. 킹, “근현대성에 대한 탐구: 근현대 도시의 특징은 무엇인가?”, 「인천세계도시 인문학대회 발표 논문집」, 인천세계도시인문학대회조직위원회, 2009.
- [23] 에드워드 랠프, 김덕현(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24] 이상환 외, 「피플메이크시티」, 디자인로커스, 2011.
- [25] 이호상,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26] 정무웅, 김선필,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기초적 연구”, 단국대학교 논문집, 27, 1993.
- [27] 조홍식 외,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09.
- [28]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2013. 3.20)
- [29]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pp.206~207, 2006.
- [30] 한국셉테드학회, <http://www.cpted.kr> (2013.10.17.)
- [31] 한준규, “음산한 골목길 '범죄 막는 노란색' 입다”, 한국일보, 2012.10.18.

Endnote

- 1) 경찰청 생활안전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방안」, 경찰청, p.11, 2005.
- 2) 이호상,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9~34 재구성, 2013.
- 3) 사토 마사루, 김명환 역, 「커뮤니티 디자인, 어떻게 할 것인가?」, 디자인 로커스, p.15, 2005.
- 4) 이상환 외, 「피플메이크시티」, 디자인로커스, p.24, 2011.
- 5) 이호상, “앞의 논문”, p.32, 2013.
- 6) 에드워드 랠프, 김덕현(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pp.28~29, 2005.
- 7) 지난 2009년 10월 인천에서 개최된 “인천 세계 도시인문학대회(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주관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주최한 세계 최초의 도시인문학 대회 앤서니 D. 킹, “근현대성에 대한 탐구: 근현대 도시의 특징은 무엇인가?(Unravelling Modernities: What are the Signs of a Modern City?)”, 인천세계도시 인문학대회 발표 논문집, 인천세계도시인문학대회 조직위원회, p.23, 2009.
- 8) 도시연대 커뮤니티 디자인센터,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다」, 나무도시, pp.24~26, 2009.
- 9) 정무웅, 김선필,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기초적 연구”, 단국대학교 논문집, p.534, 27, 1993.
- 10) 경찰청 생활안전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방안」, 경찰청, p.10, 2005.
- 11) 박현호, “영국의 CPTED전략”, 한국경찰연구, p.8, 1(2), 2003.
- 12) 한국셉테드학회, <http://www.cpted.kr> (2013.10.17.)
- 13) 박현호, “앞의 논문”, p.8, 2003.
- 14) 강부성, “사람을 위한, 안전을 위한 디자인”, 디자인손책 11번째, p.8, 2012.
- 15) 조홍식 외,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09.
- 16) 강부성, “앞의 책”, p.10, 2012.
- 17) 2세대 셉테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sustainable) 공동체를 형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건축물 설계 변화는 첫 단계에 불과하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을 통합한 총체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출처: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연구”, KiC형사정책연구소식, p.35, 2013.
- 18)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보도자료, “겉기도 무서웠던 염리동 골목길, 디자인으로 범죄예방”, p.4, 2012.10.17.
- 19)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연구”, KiC형사정책연구소식, 126(0), p.38, 2013.